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터서 벽돌가마 추가 확인

우리나라서 벽돌가마 2기 이상 확인 유적 고창·진안 유일... 초기 청자 생산 중심지 추정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진안군과 국립진안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소장 박장근)가 실시한 2022년 진안 도통리 중평마을 청자가마터 시굴조사에서 벽돌가마가 추가로 확인됐다.

진안군 성수면 중평마을 내 위치한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마을 청자가마터는 청자 생산과 관련된 퇴적구 위에 마을이 조성돼 있어 마을 전체가 유적에 해당한다.

육안으로 관찰되는 퇴적구를 기준으로 유적은 크게 동쪽 구역과 서쪽구역으로 나뉘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5차례의 (시) 발굴조사는 민가 및 도로의 조성이 적은 서쪽 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굴조사를 통해 벽돌가마 1기와 진흙가마 2기가 조사됐다. 1호 가마에 해당하는 길이 43m의 벽돌가마 내부에 진흙가마인 2호 가마가 동일한 길이에 조성돼 벽돌가마에서 진흙가마로의 변천 과정을 명확히 보여준다.

1호 벽돌가마는 호남지역에서 처음 조사된 벽돌가마로 우리나라 초기 청자의 이입 및 전파 과정, 생산 체계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마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진안 도통리 중평마을 청자가마터 시굴조사 벽돌가마 노출상태(할공촬영)

지난 2019년 9월 2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로 지정됐다.

이번에 진행된 시굴조사는 유적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청자 생산 관련 시설의 존재를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구역은 기존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동쪽 구역 내 민가와 경작지이며 사적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와는 약 90m 이격 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민가의 앞마당에서 또 다른



진안 도통리 중평마을 청자가마터 시굴조사 벽돌가마 노출상태 근경 및 수습유물

벽돌가마가 추가로 확인됐다. 드러난 벽체는 벽돌가마의 왼쪽 벽체에 해당하며, 길이 30cm, 너비 15cm, 두께 8cm 내외의 벽돌로 축조됐다.

가마 내부는 조업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으로 인해 강하게 소결(燒結)됐다. 특히 일부만 노출돼 벽돌벽체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나 기존에 조사된 1호 벽돌가마의 규모에 비해보면 청자를 넣고 구웠던 가마의 일부부분인 번조실(煔室)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벽돌가마의 운영과 관련된 벽돌 편을 비롯하여 선태무리 굽 완(碗) 편 등이 수습됐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벽돌가마는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일원과, 시흥 방산동, 용인 서리, 고창 반암리 등에서 확인됐으나, 2기 이상이 확인된 유적은 고창과 진안이 유일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진안 도통리 중평마을 일원은 초기 청자 생산의 중심지이자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로 지난 9월 29일 개최된 학술자문위원회의에서는 벽돌가마의 구조 및 성격 등을 밝히기 위한 추가 발굴조사가 추진돼야 하며, 문화재 지정구역의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면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요지의 성격과 운영 시기를 비롯해 국내 청자의 도입 과정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춘성 교수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 가마터의 보호와 향후 조사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환경축제 '군산개북거리예술제' 개최

군산시는 군산시민예술촌(촌장 박양기)이 2022군산개북거리예술제를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군산시민예술촌 및 개북동 예술거리에서 진행한다

시가 후원하는 '개북거리예술제'는 시민예술촌의 대표사업 중 거리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10월 개북동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진행됐다.

올해 축제는 '예술의 힘으로 미래를 바꾼다'를 주제로, 환경축제의 컨셉을 가지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과 예술을 접목시킨 만큼 개북동 예술의 거리 일대에 대형 연을 재활용해 꾸미고, 체험으로는 업사이클링 아트체험을 준비해 버려진 해양쓰레기로 목걸이 만들기, 재생 플라스틱으로 퍼즐 완성하기와 금강미래체험관의 병뚜껑 브로치만들기 및 시민캠페인이 함께 진행된다.

또 환경예술제라는 포커스에 맞춰 환경실천 서약과 내 손안의 분리 배출업 깔기, 플라스틱을 가져오는 환경부스가 마련됐다.

전시로는 김덕신작가의 작품이 군산시민예술촌의 아트테라토리 야외갤러리에 설치되어 관객들이 예술의 거리에서 환경과 예술의 공존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연프로그램은 조종안기자의 개북동 이야기로 거리예술제의 시작을 알리며, 퍼포밍아트 댄스(MOMM)의 환경퍼포먼스와 천사처럼 맑은 목소리로 마을을 전하는 어린이 중창단 소리엘, 군산청소년극단단의 국악버스킹, 태이트의 환경뮤지컬이 구성됐다.

특히, 올해에는 '나도! 환경시민'을 진행해 환경을 생각하고 떠오르는 시상을 행사당일 예술촌에서 나눠주는 이면지에 작성 후 제출해지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3명에게 소정의 상품도 증정할 예정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군산=김판관 기자

전북대 현대무용 전공생 프로젝트 그룹 '담다' 공연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현대무용 전공생들로 구성된 춤 프로젝트 그룹 '담다'가 8일 오후 2시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현대무용 무대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담다'는 '춤을 담아내자'라는 의미로 전북대 무용학과 현대무용 전공 학생들이 2020년 결성해 지난해 '시간을 담다'라는 주제로 첫 무대를 올렸으며, 올해는 '도담'이라는 주제로 전주 시민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도담은 '무탈하고 즐겁게'라는 의미를 가진 순 우리말로, 현대무용으로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들이 예술을 함께 향유하기를 바라는 마

음에서 이름 붙였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기에 학생들의 창작 열정과 현대무용이라는 장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무대다.

특히 모든 무대는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나현 예술감독의 지도하에 공연 팸플릿과 포스터 제작부터 작품 창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대 기획을 준비하면서 지역 예술계를 이끌어 나갈 실천 감각까지 키웠다.

공연은 총 5부로 구성됐다. 1부 '관계의 기술', 2부 '월벽', 3부 'dot', 4부 '자외선' 등의 주제로 사람의 관계나 인간의 내면세계 등을 몸짓의 언어로 이야기 한다. 마지막 5부에서는 학생들 전체가 참여하는 단체 즉흥 무대를 통해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전북예술회관, 내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23년 전라북도예술회관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이메일만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 시 대관신청서와 계획서를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2일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상반기 정기대관 선정자(단체)는 3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3개월 간 매주 금요일부터 그다음 주 목요일까지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대관 업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공연기획추진단(063-230-7489)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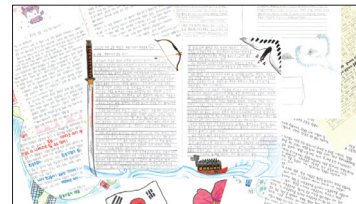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 수상작 선정

최명희문학관, 대상 김호산나 학생 '현충사에서 꿈을 꾸다' 등 115명 수상

'제16회 대한민국 초등학생 손글씨 공모전'에서 김호산(김포 양곡초 4년) 학생의 '현충사에서 꿈을 꾸다'가 대상인 전북교육감상을 받았다. 혼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이 주최·주관하고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후원하는 이 공모전은 올해 전북 92개교 등 전국 202개 학교에서 1,463명의 학생이 작품을 응모했다고 5일 밝혔다.

심사 결과 김호산나 학생이 대상, 김민서(인천인동초 4년)·정원혁(대구정동초 3년) 학생이 최우수상, 고다운(제주 아라초 2년)·곽보민(김해 능동초 6년)·김병해(전주한들초 6년)·김서현(무주 설천초 5년)·유수민(유상 상지초 3년)·이율리(서울언주초 6년)·장하은(전주진북초 1년)·정태현(전주동초 3년)·허지안(서울강빛초 5년)·현지예(제주 아라초 2년) 학생이 우수상을 받는 등 모두 115명의 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모전은 전북 지역 학생이 40%로 가장 많이 참가했고, 서울 15%, 경기 11%, 경남 10%, 경북 8%, 인천 8% 순이었다. 뉴질랜드와 베트남 등 해외에서 참가한 학생도 있었다. 작년과 다르게 개인 참



수상작품

여보다 학교·학원·아동센터 등 단체 참여가 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뤘지만, 올해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음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늘었다. 가족과의 행복한 여행일지, 친구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 반려동물과의 일화 등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아이들이 통통 튀는 생각이 담긴 작품이 많았다.

심사는 김근혜(동화작가), 김미영(문학박사), 이경숙(동화작가), 전선미(최명희문학관 학예사), 정서연(재미보따리 대표), 최기우(극작가) 등이 맡았다.

/장은성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나들이' 운영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오는 8일 투어 프로그램인 '국립무형유산원 나들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무형유산원 나들이'는 투어와 공연이 결합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투어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 8명의 배우들이 소공연 형태로 국제회의장, 공연장, 전시실 등 무형유산원의 주요 공간을 소개한다. 투어 프로그램은 무형유산을 더 친근하게 소개하고, 기관 인지도를 보다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투어 프로그램은 올해 8월 처음 시작했으며, 총 4회 회차별 20명씩 사전 모집한 인원이 전원 마감됐다.

10월에 운영하는 '국립무형유산원 나들이'는 8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12시 30분에 각각 시작한다. 오전 참가자는 체험으로 사각 조명 등을 만들어 볼 수 있고, 오후 참가자는 공연으로 멕시코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 '올라, 마리아치!(Hola, Mariachi!)'를 관람할 수 있다.

각 회차 20명 사전신청으로 자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공작소' 공식블로그(blog.naver.com/art938)나 전화(063-280-1431,143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